

‘신당’ 깃발 든 안철수 ... 정계개편 ‘태풍’ 몰고올까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일 양국 법원에서 힘겨운 소송을 벌인지 14년만에 국내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과 관계자들이 지난 1일 광주지법에서 만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 첫 승소

반성 없는 日 ... 끝나지 않은 싸움 피해자 인권보호 국가가 나서야

일제강점기 일본 군수업체에 강제 징용돼 노역에 동원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첫 승소했다. 해방 후 68년 만이며,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소송을 해온 지 14년 만이다.

광주지법 민사2부는 지난 1일 원고 5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박혜옥 할머니는 “한을 품고 눈을 감을 줄 알았는데, 이전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눈시울을 적셨다.

이들은 13~14세 때 일본에 의해 강제 징용된 뒤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일하면서 임금조차 받지 못했다. 그간 정부의 무관심 속에 미쓰비시를 상대로 외롭고 힘겨운 싸움을 해왔다.

지난 1999년 3월 1일 일본 나고야 지방재판소에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패소했다. 하지만, 광주지법에선 미쓰비시에 배상 책임이 있다며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의 가장 큰 의미는 미쓰비시가 13~14세의 어린 소녀들을 강제 징용한 뒤 노역에 동원시키는 등 강제로 노동력을 착취했다는 것을 재판부가 인정한 점이다. 재판부는 “일본이 1930년 6월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을 채택한 뒤 여성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선 강제노동을 금지했

는데, 이를 어겼다”고 판시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소송도 잇따를 전망이다. 현재 국내엔 근로정신대 피해자 600명 중 400명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할머니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른 소송 전례에 비춰 미쓰비시 측은 이번 판결에도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미쓰비시가 항소를 포기하거나 대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피해자들은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일부 사업장에 미쓰비시가 기계설비 등 공급 계약을 맺을 경우 지급대금 등 채권을 압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일 간의 오랜 숙제인 강제징용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 김희용 공동대표는 “미쓰비시중공업이 항소를 해도 국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한·일 양국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투쟁 역사를 기록한 소식지가 이날 한국에 전해졌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다카하시 마코토(高橋信)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 근로정신대 소송 지원회’ 공동대표가 지난 9월 시민모임의 ‘서울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소송 일지

1944.5.30	목포 나주 광주 순천 여수 등 전남, 충남 출신 소녀 300여명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끌려감
1945.8.15	해방(귀국은 1945년 10월 중순)
1999.3.1	양국에 할머니 외 7명 일본정부, 미쓰비시중공업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시작
2008.11.11	도로 최고재판소 기각 판결
2009.3.12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결성
2009.9.7	일본 후생노동성 사회보장청 원고 8명 후생연금 기금사실 확인
2009.10.5	미쓰비시 자동차 광주전시장 개장에 반발 1인 시위 돌림
2009.12월	일본 후생노동성 사회보장청, 후생연금 기금 99% 지급
2010.1.24	시민모임, 양국에 할머니 등 99명 파문 관련 미쓰비시중공업, 후생노동성 합의방문
2010.6.23	시민모임, 13만4천162명 서명부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 정부에 전달, 미쓰비시중공업 측 연담에서 7월15일까지 근로정신대 문제 해결 위한 합의제 구성 촉구
2010.7.14	미쓰비시, 합의제 구성한 수월의사 전달
2012.5.24	대법원, 피해자 개인 청구권 인정 취지
2012.10.24	양국에 할머니 등 원고 5명 광주지법에 손해배상 소송 청구
2013.7.10	서울고법, 신일철주금(신일모태철) 주식상대 유사 소송서 원고 4명에게 1억원씩 지급 판결, 일본 기업으로 하여금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한 첫 판결
2013.7.30	부산고법, 미쓰비시 상대 유사 소송서 원고 5명에게 8천만원씩 지급 판결
2013.11.1	광주지법, 피해자 4명에게 1억5천만원씩 유족 4명에게 8천만원 등 위자료 6억8천만원 지급 판결

변화사회 시민인권상’ 수상을 축하한 다며 14년간의 발자취를 담은 소식지를 선물로 기증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이달 중 준비위 발족·연말 창당

광주·전남은 2차 인선까지 완료

독자세력화를 추진 중인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이 이달 말께 신당 창당 선언과 함께 본격적인 신당 창당 준비작업을 위한 ‘창당준비위원회’ 발족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안 의원 측은 창당준비위원회 발족과 함께 정계 및 재야 원로로 구성된 ‘국민동맹’도 이달 중 발족할 것으로 보여 정치권 새판짜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안 의원의 삼크뱅크인 ‘정책 네트워크 내일’에서 지역 조직을 담당하는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본격적인 신당 창당을 준비하기 위한 창당준비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중순, 늦어도 이달 말께 발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안 의원이 직접 신당 창당을 선언할 계획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전남 지역의 한 실행위원은 “11월 중 창준위가 발족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역별로 임명된) 실행위원들이 창당 발기인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실행위원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으로 출발하려면 이달 중에는 창준위를 발족하고, 올 연말 내에 신당을 창당한다는 것이 내부적으로 ‘공식’”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측은 현재까지 경기, 인천, 충청, 광주, 전남, 전북, 부산·경남, 제주에서 지역조직을 담당할 실행위원 1차 인선을 마쳤다. 이어 광주·전남에선 2차 인선까지 완료했으며, 이번 주중 개별 통보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과 강원, 대구·경북의 경우도 1차 인선이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 의원 측은 전국에서 1500명가량의 실행위원을 임명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실행위원은 창당준비위가 공식화되면 창당 발기인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당법상 정당을 창당하려면 먼저 창준위를 결성해야 하며 창준위는 중앙당의 경우 200명 이상, 시·도당의 경우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

해야 한다. 또한 창준위 결성 시 발기의 취지와 정당의 명칭(가칭), 발기인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중앙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창준위는 결성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해 창당활동을 할 수 있고 창당 준비를 완료하면 정당의 명칭, 강령 및 당헌, 당원의 수, 시·도당 소재지와 명칭 등을 선관위에 등록 신청하면 된다.

안 의원 측은 전국 조직화와 함께 신당의 기초가 되는 정강 및 정책 마련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일’의 한 관계자는 “‘내일’의 자문위원과 대선캠프에 참여했던 일부 교수 등과 함께 복지, 경제 등 각 부문에서 미래 대한민국 사회가 나아갈 비전과 방향성에 대해 한창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 측이 본격적으로 신당 창당 준비에 나섬에 따라 향후 정계개편은 물론 야권 내에서 주도권 잡기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 의원 측이 올해 신당 창당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 사활을 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국이 조기에 지방선거 국면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강연정치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제3회 젊은 의사 포럼에서 강연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日, 판결 승복하고 사죄하라”

여야 정치권은 1일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에 상대로 한·일 양국법원에서 힘겨운 소송을 벌인 지 14년만에 국내 법원에

서 승소한 것을 환영하며 미쓰비시에 판결승복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은 판결에

깨끗이 승복하고,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1999년 3월 처음 소송을 시작한 이래 오늘 승소 판결을 받기까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과 유족들에게 지난 세월은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었을 것”이라며 “일본 미쓰비시사는 자발적으로 배상에 나서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승소 판결은 늦었지만 너무나 다행스럽고 당연한 일”이라며 “오늘의 판결로 오랜 시간 응어리진 아픔과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씻을 수 있게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 정부가 여전히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외면하는 큰 원인 중 하나가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이라며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직접 나서서 단호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3 QS 세계대학평가 6위
「교수 1인당 논문 피인용 수 부문」

2013 QS 아시아대학평가 1위
「교수 1인당 논문 수 부문」

스무살 지스트 GIST 당신이 희망입니다!

GIST 광주과학기술원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스무살 생일을 맞은 지스트가
광주·전남 시도민과 함께 합니다!**

지스트 설립 20주년 기념행사		
11.09.(토) 무등산 사랑 등반대회	무등산	
11.15.(금) 설립 20주년 기념식	지스트 오룡관	13:30~15:30
11.16.(토) 설립 20주년 기념 음악회 (출연진 : 에이핑크, Block B, 씨크릿 등)	지스트 잔디광장	14:00~16:00
충동문화 정기총회 및 동문 감사의 밤	지스트 오룡관	17:00~21:00